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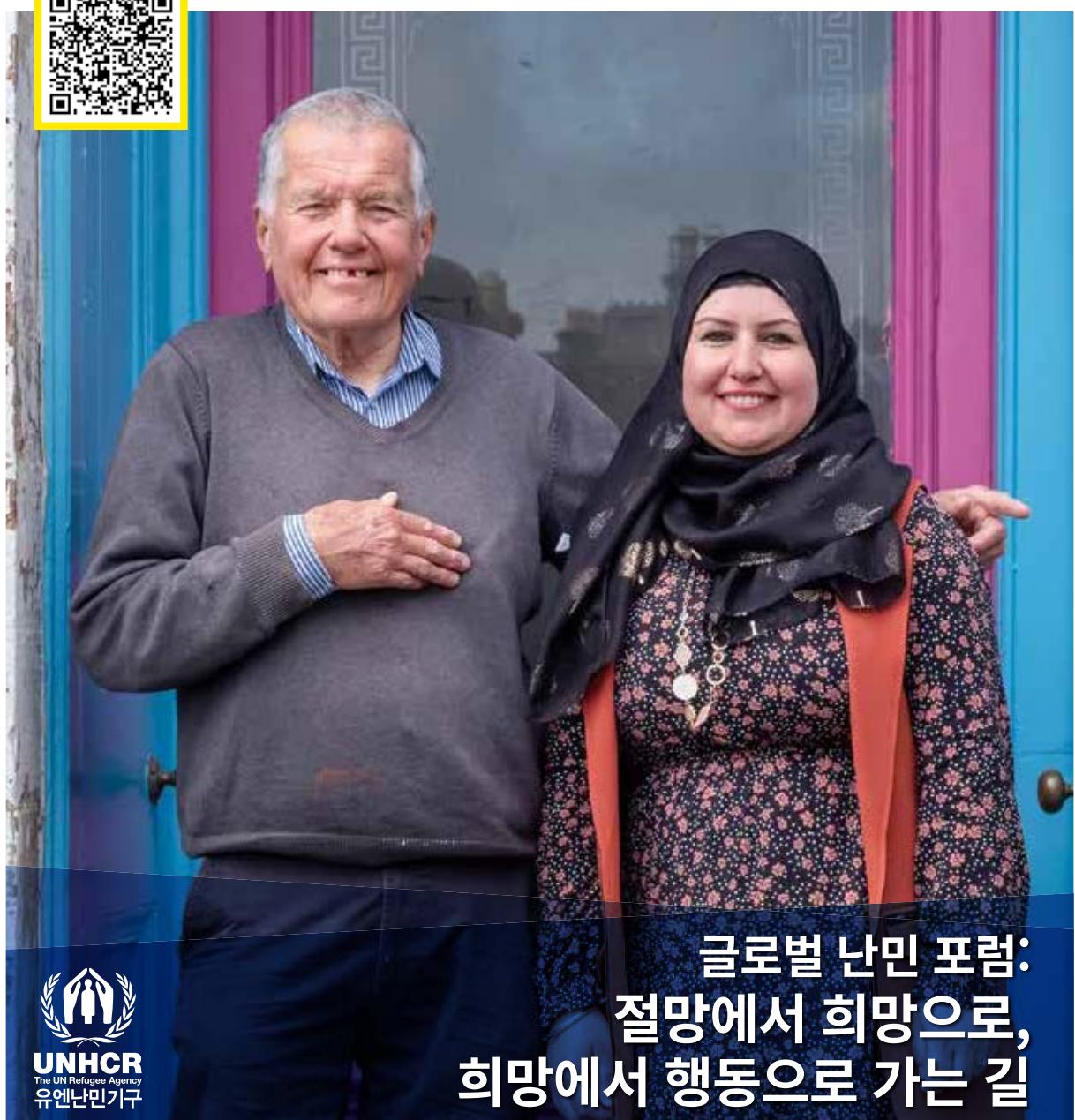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로 보기



2023 Winter

통권 51호



글로벌 난민 포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행동으로 가는 길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 UN Refugee Agency) 소개*

135개국
유엔난민기구
활동국20,739명
전체 직원 수108,400,000명**
세계 강제 실향민노벨 평화상 2회 수상
1954년 / 1981년

* 출처: 2022 UNHCR 연례 보고서

** 전 세계 강제 실향민 및 무국적 수치는 1억 1,260만 명

Contents

**03 현장에서 온 편지**산모와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조산사가 되고 싶은 슈크리아의 이야기**04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난민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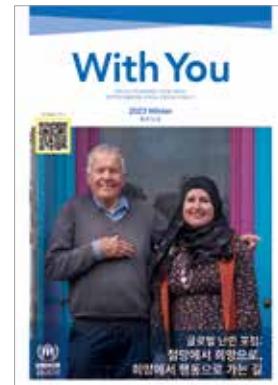
**17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18 With You가 만난 사람**2023 난센 난민상 글로벌 수상자
압둘라히 미레**20 유엔난민기구 배움터: Q&A****22 유엔난민기구 소식****24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캠페인

Cover Story



시리아 난민 와파(Wafa, 우측)와 그의 친구이자 영어 선생님 데이비드(David). 와파의 가족은 이라크에서 살다가 스콜랜드에 재정착했고, 와파는 현재 지역 자선 단체의 가게에서 봉사하며 이곳에 새로 도착한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재정착을 포함한 제3국을 통한 해결책 확대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4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UNHCR/Andrew Testa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전혜경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주)이팝

산모와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조산사가 되고 싶은 슈크리아의 이야기



©UNHCR/Oxygen Empire Media Production

아프가니스탄의 외딴 산간 마을에 사는 라헬라(Rahela)가 진흙으로 지은 단칸방에서 자신의 세 번째 아이를 어떻게 잃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임신 6개월이었던 라헬라는 한밤중 진통을 느껴 깨어났고, 마을에 조산사가 없었기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가파른 산길을 따라 약 2시간 거리의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진통과 출혈이 심했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이미 백속에서 죽은 상태였어요.”

라헬라가 겪은 일은 바미안(Bamyan)과 다이쿤디(Daikundi)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험난한 산간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폭설로 몇 달 동안 마을 도로와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는 혹독한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유아 및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매일 24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출산이나 임신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원하는 2년제 조산사 수료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은 이런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80명의 여성은 외딴 지역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의욕이 넘칩니다. 2021년 아프간 사설상 당국은 여학생의 중고등 교육과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을 금지했는데, 이 훈련 과정은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 보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아프간 여성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지원자가 넘쳐났고,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프로그램 책임자가 말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두 개 지역에서 내년에도 동일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중 한 명인 슈크리아(Shukria)는 이번 마을 가정 방문을 통해 숙련된 조산사로서 지역사회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마을에서 라헬라 같은 엄마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해서 엄마와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조산사가 되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슈크리아 이야기
더보기(영문)



글로벌 난민 포럼

올해 12월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4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소식지 With You - 2023년 겨울호

5



글로벌 난민 포럼: 전 세계 강제 실향 문제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실질적인 목표 이행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강제 실향 문제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은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서약과 기여를 발표하고,

진행 경과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과제와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2019년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와 70명의 난민 © UNHCR/Andrew McConnell

글로벌 난민 포럼의 탄생 배경: 뉴욕 선언과 난민 글로벌 콤팩트

뉴욕 선언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강제 실향이 증가하고 중저소득 국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은 국제적 연대와 난민 보호의 역사적인 이정표로서, 전 세계 난민 위기에 맞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포괄적인 대응 비전을 제시하며, 난민과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여, **강제로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의 국제적 책임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뉴욕 선언
더보기(영문)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케냐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
부룬디 난민 © UNHCR/Pauline Omagwa



난민촌에서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로힝야 여성들 © UNHCR/Kamrul Hasan



니제르의 기회의 마을에서 땅콩기름을 함께 생산하는 난민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여성 협동조합 © UNHCR/Colin Delfosse



요르단 난민촌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보충적 경로를 통해 영국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 시리아 난민 © UNHCR/Lilly Carlisle



난민 글로벌 콤팩트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수용국 지역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난민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하며,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대응 방식을 변화시켜 난민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
더보기(영문)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은 '난민에 대한 포용'입니다.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와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중심에는 난민이 처음부터 지역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민이 교육과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을 쌓고 자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수용국 지역사회의 발전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난민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난민의 생존만이 아니라 번영을 도움으로써, 장기 체류의 위험을 줄이고 난민의 인도적 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재정착해 지역 자선 단체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 UNHCR/Andrew Testa



양골라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이동하는 귀환민들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 UNHCR/Lina Ferreira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

2019년 12월 16일(사전 세션)~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독일, 파키스탄, 튀르키예 5개국의 공동 주관, 스위스 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난민과 수용국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면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려는 리더십과 비전,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럼에는 4명의 국가 정상(혹은 정부 수반), 90명 이상의 장관급 인사, 유엔 사무총장, 약 55개 국제기구, 130개 이상의 기업 및 재단, 약 250개 시민 사회 단체, 약 70명의 난민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석했고,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포함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난민들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 이행을 위한 서약뿐만 아니라, 논의 준비 과정과 행사에 전례 없이 깊이 있게 참여했습니다.



2019 포럼
더보기(영문)



GLOBAL REFUGEE FORUM 17–18 DECEMBER 2019, GENEVA, SWITZERLAND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관계자들 © UNHCR/Andrew McConnell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

올해 12월 12일(사전 세션)~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콜롬비아, 프랑스, 일본, 요르단, 니제르, 우간다 6개국이 공동 의장국으로 주관하고 스위스 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글로벌 난민 포럼의 키워드는 행동(Action), 연합(Unity), 영향(Impact)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 코이카 등 정부 기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한민국 8개 종단(유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이슬람교)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종교계는 이번 글로벌 난민 포럼 현장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제로 한 공동 서약을 직접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8개 종단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한 포용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이해를 돋고 사회 각 영역의 연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노력에 함께 할 것을 서약할 예정입니다.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을 기념해 제네바의 다리 위에 설치된
유엔난민기구 깃발 © UNHCR/Mark Henley



2023 포럼
더보기(영문)

2023 난센 난민상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과 함께 12월 13일 밤에 열리는 2023년 난센 난민상(Nansen Refugee Award) 시상식은 글로벌 수상자와 4개 지역 수상자의 탁월한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난센 난민상은 초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로서 난민법의 근간을 마련하고 난민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한 프리드리히 난센(Fridtjof Nansen)의 정신을 이어받아, 1954년 제정 이후 전 세계 난민을 위해 인도적인 헌신을 보여준 개인 혹은 단체에 매년 수여되는 상입니다. 2022년 난센 난민상 글로벌 수상자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전 총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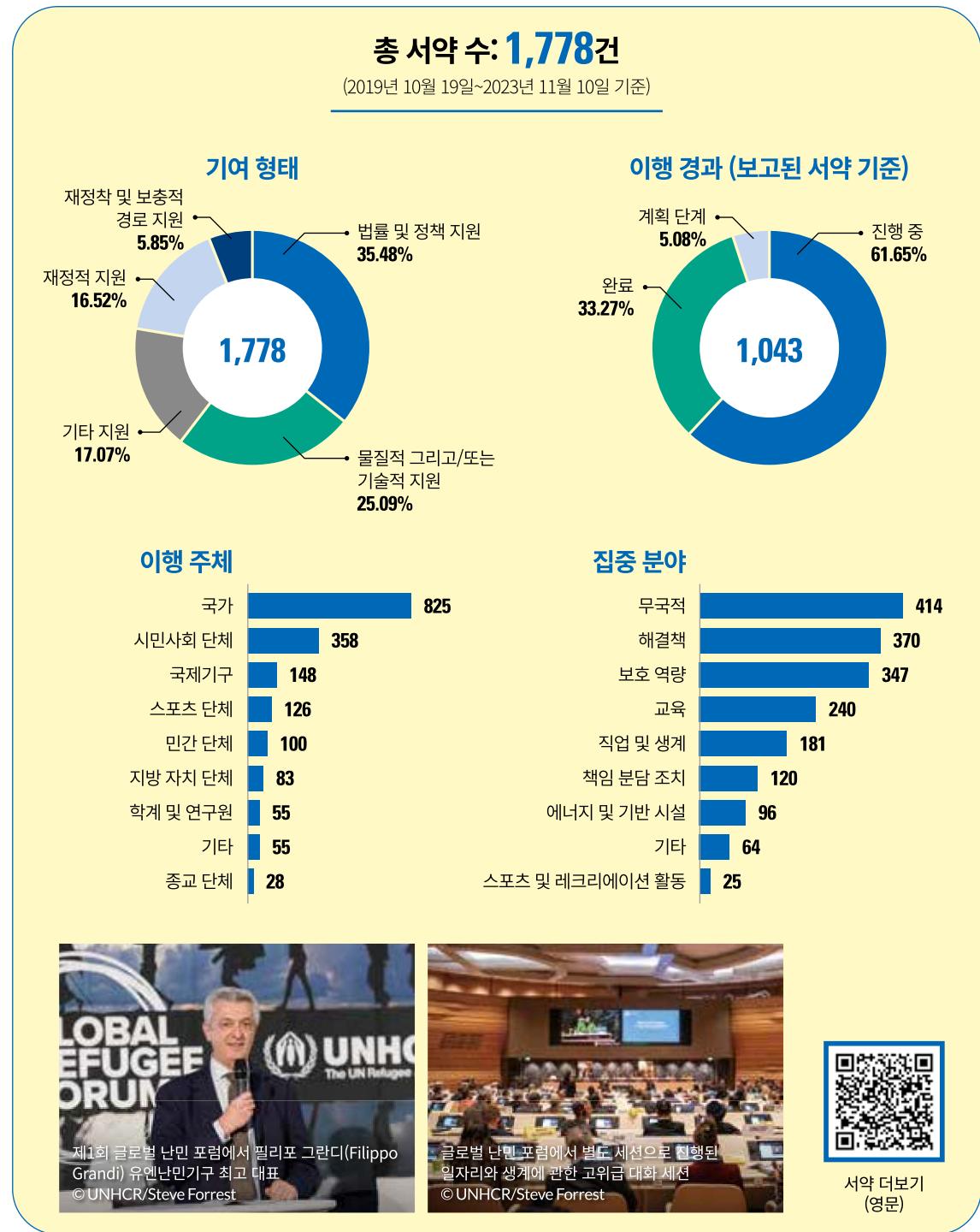
2023 난센 난민상
더보기(영문)



2022년 난센 난민상 시상식
더보기(영문)

난민 글로벌 콤팩트 서약

서약(pledge)은 난민 글로벌 콤팩트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가, 단체, 기업, 학계 및 난민들이 제공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11월 10일 기준, 난민 글로벌 콤팩트 서약의 기여 형태 및 집중 분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 특집 스토리

| 포르투갈 도시의 난민 포용을 돋는 아프간 인권 활동가



같은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에 새로 만든 '이민 센터'는 난민과 이주민 200 여 명에게 숙박 이외에도 보육, 상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제공합니다.

페르난데스 시장은 주민의 7%가 외국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집과 직업을

찾고 지역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푼당시는 포용적인 정책과 관행이 어떻게 새로운 인구의 자립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난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디카는 이곳에서 문화 중재자로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뒤로하고, 이제 이곳에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세디카의
영상 보기



세디카의
이야기 더보기(영문)

세디카(Sediqa)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정부 기구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직업을 넘어서 소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사실상 당국의 집권 이후, 세디카는 포르투갈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권리, 직업, 교육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포르투갈 동부의 작은 도시에 정착한 세디카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녀는 현재 푼당(Fundão) 시의 문화 중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이 도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주가 시작된 이후 계속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울로 페르난데스(Paulo Fernandes) 시장이 말합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큰 도시나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도시는 고령화되었고, 이 지역 기업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푼당시는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을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 중재자팀은 이곳에 새로 도착한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시아,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과 이주민이 필요 문서와 일자리에 접근하고 교육, 의료와



| 난민과 함께해 온 달콤한 여정, 엘리스 치즈케이크 컴퍼니의 비밀 레시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엘리스 치즈케이크 컴퍼니(Eli's Cheesecake Company)의 설립자인 엘리 술먼(Eli Schulman)은 맛있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타인을 내 몸같이 대하라’는 시대 불변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회사의 기풍이 되었고, 지난 40년 동안, 이 도시에 정착한 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난민 재정착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회사 직원의 30%가 난민입니다.** 사실 엘리의 아버지는 체코 출신 난민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회사의 관리자 중 많은 수가 난민 출신인데, 우린 함께 성장해 왔어요. 재능있고 헌신적인 난민 직원들이 그동안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 목도해 왔어요.”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술먼(Marc Schulman)이 설명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엘리아스 카송고(Elias Kasongo)도 이러한 난민 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 고국을 떠나 잠비아 난민촌에서 4년간 지내다가 미국 시카고로 재정착했고, 재정착 담당자를 통해 엘리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점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크러스트 제조, 위생 관리, 재료 준비, 프론트 오피스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구매 부서 부담당자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재료 구매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와 난민 동료들에게 회사는 일터 이상의 의미이며, 두 번째 가족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친척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회사는 제게 집과 같았습니다.**” 일부 직원은 수십 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충성심은 회사의 접근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술먼 가족이 기업을 계승한

것처럼, 난민 직원들도 다음 세대에 자신의 경험을 전승합니다. 엘리아스의 아들 존(John)은 올여름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난민들에게 월급만이 아니라, 소속감, 삶의 목적, 희망을 선물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와 수십 년간 협력해 온 난민 재정착 기관 담당자가 말합니다.

마크 술먼은 아버지의 원칙을 지키고 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따라야 하는 성공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다른 기업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엘리스 컴퍼니의
영상 보기



엘리스 컴퍼니 이야기
더보기(영문)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의 후원의 손길로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지원 현황 업데이트: 2023년 10월~11월

- 1
- 6
- 4
- 5
- 3
- 2



후원금 영상 보기

① 리비아

지난 9월 10일 리비아 동북부를 덮친 열대성 폭풍으로 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유엔난민기구는 5만 2,000명 이상에게 방수포, 주방용품, 태양광 램프, 담요, 물통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고, 또한 기관 간 대응을 통해 총 14만 6,000 명에게 위생 키트, 식량, 핵심 구호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트리스와 주방용품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집과 가구, 부엌이 그립습니다. 집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 홍수 생존자 이클라스(Ikhlas, 가명) -



리비아에 도착한 53톤의 구호 물품 © UNHCR/Ziyad Alhamadi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유엔난민기구
© UNHCR/Ziyad Alhamadi



폭우 피해를 입은 케냐 난민촌 © UNHCR/Mohamed Aden Maalim

②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폭우와 홍수를 피해 실내민들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11월 초 이후 약 80만 명이 집을 떠났고,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에서는 약 5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재민들에게 존엄 키트를 포함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임시 거처 수리 혹은 보강을 위한 자재를 사거나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도록 현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③ 방글라데시

지역사회 훈련을 통해 상담사를 양성하면서, 난민촌 내 정신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상담사 100명 중 80명은 로힝야 난민이며, 이들은 182명의 사회심리적 지원봉사자(CPV)와 함께 유엔난민기구의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담사는 일대일 상담, 지원봉사자는 더 나은 양육 및 분노 관리와 같은 주제에 대한 그룹 세션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난민촌 내 단 두 곳의 입원 환자 정신 건강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원봉사자로부터 이러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듣습니다.”

- 하빈 알리(Hivine Ali) 유엔난민기구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 담당관 -



로힝야 난민촌 의료 센터에서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 직원들
© UNHCR/Fahima Tajrin



난민촌에서 그룹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자원봉사자들
© UNHCR/Fahima Tajrin

④ 아르메니아

수십 년간 이어진 분쟁이 격화하면서, 9월 24일 이후 10만 명 이상이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Karabakh)에서 아르메니아로 피난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30년간 활동해 온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발생 첫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9월 28일 아르메니아를 긴급구호 1단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10월 말 기준, 접이식 침대, 매트리스, 담요, 베개, 리넨, 위생용품, 주방용품 등 1만 5,000개 이상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핫라인을 통해 도움과 정보를 구하는 1,400건 이상의 긴급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도착한 난민에게 상담과 핫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Karen Minasyan



아르메니아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 UNHCR/Karen Minasyan

“아르메니아 국경 마을에 도착한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었는데, 구호 활동가가 제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며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 아제르바이잔 난민 카린(Karine) -



지진 피해 지역에 도움을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
©UNHCR/Oxygen Empire Media Production



국경 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UNHCR/Oxygen Empire Media Production

⑤ 아프가니스탄

지난 10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세 차례 아프가니스탄 헤라트(Herat)주를 강타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난 11월 17일 기준, 긴급 거처 1,921개, 담요 1만 8,656장, 요리용 가스통과 양동이 5,308개, 물통 1만 616개, 주방용품 5,138세트, 방수포 1만 603개, 생리대 9,962개, 비누 2만 5,885개, 태양광 램프 1만 개 이상을 전달하고, 인도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겨울 기간 (10월~내년 3월) 주거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자와 협력하여 약 40회에 걸쳐 총 3,300명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정보 상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초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에 따라, 보호 모니터링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열 명의 가족을 잃었어요.
일곱 명의 조카를 포함해서요.”

- 지진 생존자 자히르(Zahir) -

⑥ 시리아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알레포(Aleppo)의 취약 계층에게 담요, 방수포, 성인용 겨울 재킷, 아동용 의류 키트, 카펫 등을 포함한 겨울용품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내전 가운데 손상된 집들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82세 무사(Mousa)도 이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얼마 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집은 세간살이는 물론 문과 창문조차 없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노부부의 집에 문과 창문을 설치해 이들의 거처를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엔 벽돌로 창문 틈을 메웠는데,
이번 겨울에는 새로 설치된 문과 창문으로
온기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 시리아 귀환민 무사 -



알레포에서 겨울용품을 배포하는 유엔난민기구
©UNHCR/Hameed Maarouf



무사와 그의 아내 ©UNHCR/Vivian Tou'meh



후원 신청서

다가오는 겨울,
난민 가족에게 온기를 선물해주세요



후원하기

아프가니스탄 바미안(Bamyan) 지역에 사는 가족 ©UNHCR/Julian Busch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1666-5397)로 보내주시거나,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정보

현재 유엔난민기구에 후원 중이신가요?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휴대전화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겨울 지원 캠페인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액 200만 원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가족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주거 단열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요르단에 있는 한 가족이 겨울을 대비해 임시 거처를 수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만 원이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가족이 겨울 동안 식량, 연료, 월동 장비 등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 긴급 생계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레바논에 있는 한 가족에게 담요, 겨울옷 등을 포함한 겨울용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기타(정기 일시) _____ 원

*정기 후원자가 일시 후원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출금되며,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재출금이 시도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후원금 사용 예시로, 후원금 사용 내역은 겨울호 14~16쪽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또는 인)



난센(Nansen) 난민상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인도적인 헌신을 보여준 개인과 단체에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소말리아 난민 출신 기자로서 케냐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을 옹호해 온 압둘라히 미레(Abdullahi Mire)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난민촌의 어린 시절

“저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알파벳 읽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어 했죠.” 미레의 가족이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케냐 다답(Dadaab) 난민촌에 정착한 1991년, 그는 겨우 세 살이었습니다. 금방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그의 부모는 다답이 20년 이상 자신들의 집이 될 것이라고는, 그리고 어린 아들이 이곳의 경험을 통해 나중에 존경받는 기자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난민 활동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난민촌 중 한 곳인 다답 난민촌에서 자란

미레는 교육이 난민촌 생활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탈출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등교 첫날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죠. 학교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페이지가 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여성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높은 경쟁률 뚫고 장학금을 받아 다답에 있는 대학에서 언론홍보학을 공부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난민 학생들에게 책과 학습 자료를 지원하는 ‘난민 청소년 교육 허브(Refugee Youth Education Hub)’를 설립해 꿈과 잠재력을 가진 어린 난민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체는 설립 이후 교육 자선단체와 다답 출신 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 10만 권 이상을 난민촌 학교에 지원했고, 3개의 공공 도서관을 개소했습니다. 또한 케냐에 있는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을 지지하고, 난민촌 내 난민 여성의 생계와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2023 난센 난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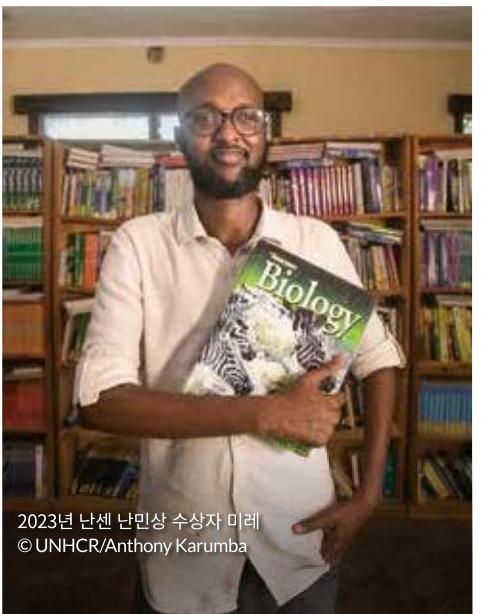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난센 난민상 글로벌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정표를 달성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집을 떠나야만 했던 모든 난민 아이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이 상은 난민 아이들에게 계속 꿈을 꿀 이유와 희망을 주기 위한 상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미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언론 매체에 난민촌 거주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그는 다답의 중등학교에서 취재 임무를 하던 중 만난 한 여학생으로부터 이곳 학생들에게, 특히 여학생들에게 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단 바시르(Hodan Bashir)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꿈이 의사라면서 생물학책 한 권을 다른 15명의 소녀와 공유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좌절스럽다고 제게 토로했어요.”



다답 북 드라이브

호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미레는 난민촌 학교에 보낼 책을 수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말리아 출신 공동체를 포함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캠페인 첫 시작 단계에서만 2만 권 이상의 책을 수집했습니다. 호단은 기증된 도서를 받은 첫 번째 학생 그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난민촌의 대표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습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물학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어요. 미레는 필요한 책을 구해줬고, 제게 책을 읽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제 열망을 이루라고 조언했어요. 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산모와 아이들을 돋고 있어요.”

미레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답에 있는 모든 아이의 손에 책을 줘여주는 것입니다. “난민촌에서는 모든 게 일시적이에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입니다. 저의 비전은 난민촌의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도록 돋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배움터: Q&A

Q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닐 게이먼이 발표한 난민을 위한 시집!

지난 10월, 영국의 세계적인 작가 닐 게이먼(Neil Gaiman)이 ‘따뜻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What You Need to Be Warm)’이라는 난민을 위한 시집을 출간했어요. 희망과 기억, 환대를 주제로 한 시 모음과 일러스트레이터 13인의 삽화를 담은 이 시집이 만들어진 배경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닐 게이먼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따뜻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고, 팔로워들에게 받은 수천 개의 답변은 그의 손에서 시로 탄생했어요. 다음 해, 그의 작품은 3미터 길이의 거대한 연대 스카프로 만들어졌고, #DrawForRefugees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삽화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 닐 게이먼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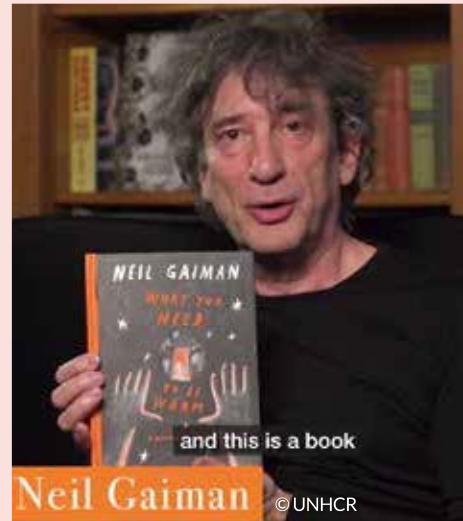
우리도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전 세계 난민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 여성들과 함께 만든 연대 스카프
© UNHCR/Jordi Matas



닐 게이먼 더보기
(영문)



Q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 온 포세의 ‘3부작’

지난 10월 발표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 극작가이자 소설가 온 포세(Jon Fosse)가 선정되었는데요, 스웨덴 한림원은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노벨상 수상 이후 그의 대표작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3개의 연작 소설로 이뤄진 ‘3부작(잠 못드는 사람들/올라브의 꿈/해질 무렵)’은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지낼 곳을 찾아 떠도는, 어쩌면 우리 시대 난민의 모습과 닮아있는, 세상에 머물 자리가 없는 어린 연인 아슬레와 알리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온 포세는 3개의 연결된 이야기를 따라가며, 가난하고 비루한 이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소박하고 거룩한 사랑, 쓸쓸한 희망과 좌절, 사라지는 것들과 영원히 이어지는 것들을 아름답고도 서글픈 문장으로 담아내는데요, 한 편의 긴 시처럼, 음악처럼 이어지는 이 작품을 통해 온 포세가 던지는 굵직한 질문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도서

Q 유엔난민기구가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친환경
공급망
더보기(영문)

유엔난민기구는 2025년까지 구호 물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보호와 지원 제공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① 긴급구호 물품 재설계

지금까지 담요, 수면 매트, 물통, 양동이, 태양광 램프, 주방용품 등 6개 물품에 변화가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버진 플라스틱*을 재활용 소재로 대체한 것인데요, 새로 만든 보온 담요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 덕분에,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② 지속 가능한 포장재 사용

포장재의 양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생분해성 소재 대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방용품을 비닐 대신 갈색 종이로 포장하고, 박스 로고 인쇄에 사용하던 파란색 잉크도 갈색과 검은색으로 교체해서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③ 현지 공급업체와의 협력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물품의 50~60%를 현지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나아가 구매 제품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도록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어요. 재활용 소재 및 재생 에너지원 사용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요.

④ 폐기물 절감

구호 물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유엔난민기구, 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하는데요, 이미 많은 난민이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수리 혹은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는 물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물품의 수명을 늘리고 있어요. 각 물품에는 재질과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큐알코드가 라벨로 부착될 예정이고요.

⑤ 공동 대응

유엔난민기구의 공급망은 훨씬 더 큰 인도주의적 지원 시스템의 일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유엔난민기구는 최선의 접근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업계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유엔 기구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고 있어요.

* 재활용된 물질 없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되는 좀 더 탄소 집약적인 플라스틱



유엔난민기구 헝가리 물류 창고에서 공급 담당팀 © UNHCR/Tünde Vánka



유엔난민기구 헝가리 물류 창고에서 공급 담당 직원
© UNHCR/Tünde Vánka

글로벌
글로벌 소식
더보기(영문)공동 성명 전문
보기(영문)UNRAW
홈페이지(영문)

글로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우리는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5일,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국제기구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국제이주기구(IOM), 유니세프(UNICEF) 등의 수장들과 함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상단 큐알코드 참고)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유엔난민기구가 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949년 유엔 총회는 각기 다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두 개의 난민 기구를 설립하고, 이 두 기관에 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상호 보완적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AW):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나 서안지구 또는 주변국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며, 기초 교육, 1차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구호 및 사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돋기 위해 설립된 유엔난민기구는 **위의 5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하여 현재 135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난민, 난민 신청자, 무국적자를 포함한 강제 실향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UNHCR/Zasha Millan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 관련 안전과 보호 촉구

“모든 귀환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리파 캔들러(Philipa Candler) 유엔난민기구 파키스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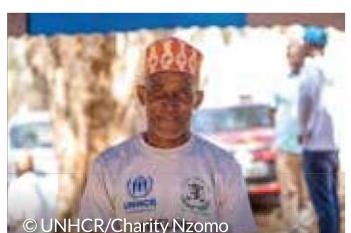
지난 10월 3일, 파akistan 정부가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파akistan 내 약 1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아프간인을 포함해 많은 아프간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33만 명 이상의 아프간인이 귀환한 것으로 파악되며, 유엔난민기구는 파akistan과 아프가니스탄을 긴급구호 2단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파akistan 정부에 취약한 아프간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UNHCR/Alessio Mamo

난민 이송 조치 관련 국제 난민법 존중 촉구

유엔난민기구는 11월 발표된 이탈리아-알바니아 협정 당사자 혹은 참여자가 아니며, 협약 내용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 통보받거나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오랜 입장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이나 이송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특히 해당 국가가 난민 협약과 인권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경우, 그리고 해당 협정이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난민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간주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중해의 해상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들과의 연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이탈리아 및 알바니아 정부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UNHCR/Charity Nzomo

무국적 근절 #IBELONG 캠페인 9주년 기념

지난 11월,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무국적 근절을 위한 #IBELONG 캠페인 9주년을 기념했습니다. 2023년 키르기스스탄과 몰도바는 무국적 출생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했고, 포르투갈은 무국적 심사 절차 확립을 포함해 무국적 상태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승인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모의 체류 상태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가장 최근에 무국적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95 개국에서 440만 명 이상이 무국적 혹은 국적 불명으로 추정됩니다.



2023 아트 콘테스트 개최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인 유니클로와 함께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Hope Away from Home)’을 주제로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에서 난민을 포함해 4,000명 이상이 참가했고, 베스트 디자인으로 선정된 글로벌 수상작 5점은 티셔츠로 제작되어 내년 초 일부 유니클로 매장과 유엔난민기구 삽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상작과 참가자들의 작품 설명 일부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수상작



© UNHCR/Asifiwe



© UNHCR/Vi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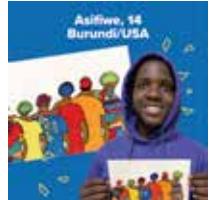
© UNHCR/Afya



© UNHCR/Mawardi © UNHCR/Georgette

헝가리 거주
28세 비라그(Virag)

작품명: 희망의 날개
“제게 영감을 주는 많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만나면서, ‘타향에서 마주한 희망’이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새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제 그림은 이러한 희망을 쫓는 행위를 표현해요. 하트 모양은 비록 집을 떠나있어도 꿈을 따르는 게 가능하다는 걸 상징해요.”

미국 재정착 부룬디 난민
14세 아시피웨(Asifiwe)

작품명: 우정 암호
“제가 부룬디에 살았을 때 어울리던 친구들을 그렸어요. 우리에게 ‘서로가 일순위이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우정 암호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제 힘과 희망의 원천이에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함께이고, 우리의 기억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한국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해도 변치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난민들 곁에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등록 확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개인)를 통해 후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안내
자세히 보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0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후원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가 정확히 등록된 개인에 한하여
2024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02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2024년 1월 8일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03

팩스, 이메일, 우편 수신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출력이 불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송은
아니며, 평일 기준 업무 시간
내에 발송됩니다.

한 해 동안 With You 소식지 설문을 통해 남겨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세계 평화가 오는 날을 고대합니다.

내 작은 성의가 많이 아프고 힘든 분에게 희망의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라도 연결된 공동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유엔의 노력으로 많은 난민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앞이 캄캄했어도 우리 함께 있다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우울한 제게도 힘이되는 소식이구요. 저도 힘을 내곤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티끌만한 나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이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세계 인류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나도 함께한다는 것이 기뻐요. 수고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구촌 모든 가족이 굶주림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밝은 표정처럼 모두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난민과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With 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더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4년 1월 5일(금)까지

참여 방법 우측 QR 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설문 참여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23 서울특별시 종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 UNHCR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